



- 발행처 : 사천이씨 대중회
- 발행인 : 회 장 이 선 영
- 편집인 : 부회장 이 영 근
- 발행일 : 2016년 4월 17일

| 주소 : 경남 사천시 정동면 여옥길 9 | <http://sachonlee.net> |

씨족의 표상인 성 본(姓本)과 족보(族譜)를 보듬자



대중회 회장 李善永

병신년(丙申年) 새해를 맞이하여 대중회 종인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해마다 이 무렵 조원사에서는 전국 각지의 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조공 이하 6세 7현의 대제(大祭)를 봉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의 조상을 모시는, 성과 본(姓과 本)이 같은 씨족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우리의 전통문화입니다.

조원사를 구심점으로 전국 각지의 종인들과 함께 선조를 봉향하고 종사를 논의하는 목적은 조상의 훌륭한 유업과 정신을 다음 세대에 이어가게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종인들이 씨족의 표상인 성 본(姓本)과 족보(族譜)를 보듬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품속에 평화롭게 보듬어져 있는 아이처럼 모든 종인이 성 본 족보를 보듬고 있노라면 혈족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1년 전부터 우리사회에는 전통 가족문화인 호주제가 폐지되고,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법원의 허가만 받으면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사이에 매년 6천5백여 명에서 7천5백여 명에 이르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生父의 성과 본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지금 수백 년 오랜 세월 이어져왔던 성불변(姓不變)의 원칙(原則)과 부성주의원칙(父姓主義原則)이 없어진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가족제도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 관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는 타성이 원칙이고 어느 타성과 혼인을 하는가는 그 가문의 자존심이었습니다. 타성 중에서도 소위 양반가와 혼인은 그 가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의 척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뿌리 깊고 화목한 가정은 타성혼을 선택하여 가정을 더욱 융성하게 하여 왔고 가문을 더욱 빛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태어나 자란 자녀들은 성 본 변경을 생각할 수도 없었고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성불변의 원칙과 부성주의원칙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에게 일반적으로 희생을 요구하는 면도 있었고, 어떤 씨족과 문중에서는 각기 명조·현조(名祖·顯祖)를 확보하기 위해 족보편찬 때마다 개관·환본·모관(改貫·還本·母貫)과 조상세계(祖上世系) 조작 및 족파의 가탁·투탁(假託·投託)과 같은 폐단도 있었다고 합니다. 족보체계가 확립되지 않았던 시대에 유리한대로 성과 본을 바꾸어 뿌리를 왜곡하고, 조상을 잘 모르거나 조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뿌리를 새로 심기 위해 왕왕 투탁(投託)을 했다고도 합니다. 성 본 변경이 가능한 오늘날에 와서는 뿌리가 왜곡될 가능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종인 여러분! 우리 씨족은 고려조 충렬왕 때 송악군수를 지내신 諱(휘) 軾(식) 祖를 시조로 받들고 선향인 사천(古號 동성)을 본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18년 전 1998년에 편찬한 대동보(족보)는 우리 혈족의 역사를 그대로 새겨두고 있으며, 호적부가 없어진 이후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혈족의 내력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보듬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시집간 딸의 기록도 있고 시집은 며느리의 성 본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손은 그 집 가문의 족보에 등재되어 있을 것이고, 친손은 우리 가문의 족보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살다보면 부부가 백년해로를 하지 못하고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혼한 어머니(며느리)를 따라 간 친손이 성 본 변경허가를 받아 타성으로 바꾸었다면 그 친손을 혈통이 아니라고 족보에서 삭제할 수 있을까요? 이혼한 어머니(딸)를 따라 온 외손이 성 본 변경허가를 받아 어머니姓으로 바꾼다면 그 외손을 혈통이라고 등재할 수 있을까요? 어느 쪽에도 족보에 등재될 수 없다면 그 친손과 외손의 조상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혈통으로 인정하느냐 않느냐는 족보에의 삭제 또는 등재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어느 시기에 대동보(족보) 편찬을 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족보는 부성주의 원칙에 따라 편찬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부성주의 원칙이던 모성주의 원칙이던 혈통을 기록해 놓은 소중한 자산인 것입니다.

족보는 보통 한 세대인 30년을 단위로 편찬한다고 합니다마는 씨족의 사정에 따라서는 그 보다 연장될 수도 있고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씨족의 표상인 성 본(姓本)과 족보(族譜)를 보듬고 가는 데는 모든 종인이 선조의 훌륭한 업적과 정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부봉산의 정기(精氣)가 종인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원사 발전에 대한 나의 小考 (젊은 층의 연수회 개최를 전제로)



대중회 명예회장
침정공파 22세손
이봉록

조원사 건립과 운영에 열과 성을 다하다 작고하신 선배 어르신들의 명복을 빌고 그분들의 업적을 찬양하면서 우리 종원들의 단결과 조원사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나의 소감을 피력코저 합니다.

요즘 사회악이 번창하고 도덕성이 몰락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지 참으로 한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들 딸을, 자식은 부모를 살해 매장하는 등 우리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016년 3월5일에 개최한 대중회 임원님들의 회의에 참석을 했더니 참석인원이 너무나도 적은 것을 보고도 앞날이 걱정되었습니다. 조원사에 우리 선조를 모신지 십수년이 되었는데 임원참석과 종인들의 모임이 해가 거듭할수록 줄어가는 것은 선조에 대한 경(敬)의 정신이 그만큼 헛되어 가는 증거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회고컨대 조원사 창건 당시 우리 일족은 너, 나를 막론하고 모두 일심동체가 되어서 헌금하여 자랑할 수 있는 오늘의 조원사가 탄생되었습니다. 이의 자랑이 해가 거듭 할수록 쇠퇴되어 가니 또한 앞날이 걱정됩니다.

우리 문중 종인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하여는 후손들의 참여의식이 높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층의 도덕성과 조상숭배의 의식을 높이고 전 종인의 단합과 특히 이해가 부족한 젊은 층을 대상으로 수련회(초.중.고.대)를 개최하여 조상의 얼을 되새기게 하는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로 인해서 우리 문중의 모든 문중인들의 화합과 단결로서 조원사의 발전과 가문의 명예가 영구히 보존될 것으로 봅니다.

부디 대중회에서는 수련회 기회를 거치면서 충효예경(忠孝禮敬)사상을 간직하도록 금년도 하계방학을 이용하여 실천하도록 희망합니다. 연수교육을 통해서 우수생에게는 포상과 장학금 지급도 하루 속히 실현되어야겠고 이로 인해서는 모든 종인의 성숙한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종인들의 의식을 새롭게 하여 사천(동성)李氏의 영원불멸한 발전을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2016년 대종회이사회

- 일시 : 2016년 3월 5일
- 장소 : 조원사 일원재



2015년도 주요 종무보고

1. 대종회 이사회 개최

- 2015.3.14.(토) 11:00
- 조원사 일원재

2. 구암 春季祭享 참배

- 2015.4.11.(토) 10:00
- 구계서원
- 참배인원 70여명, 안동 도산서원10명, 대종회 회장 종헌관.
- 감사패 수여 : 사천문화원장(장병석), 구계서원 대관대유계회장(장창현), 구암연구소장(이은식)



3. 始祖公 春季大祭 및 총회 개최

- 2015.4.19.(일) 11:00
- 조원사 일원재
- 유사 : 우소재 대산문중
- 참배인원(참배자 서명부 기준) : 참지공파 14명, 진사공파 1명, 참의공파 1명, 첨정공파 5명, 우소재공파 12명, 백인재공파 22명, 성균진사공파 9명, 생원공파 8명, 선무랑공파 1명 총73명
- 유사순번 재확인
성균진사 대곡문중(2011년도), 첨정공 중선문중(2012년도), 성균진사 화암문중(2013년도), 백인재 고읍문중(2014년도), 우소재 대산문중(2015년도), 성균진사 대곡문중(2016년도)



4. 종보 "뿌리" 제4호 발행 배부

5. 제6회 구암제 참관

- 2015. 5. 10(일)
- 사천시청
- 회장 외 많은 종인 참관
- 2010년(1회)부터 2015년(6회)까지 문중에서 관리했던 구암제 "시화전" 간판은 2016년부터는 사천문화원에서 새로 제작하여 관리하고 행사에 사용하기로 함.
2015년 11월 3일 간판 및 관련 자료를 모두 이관하고 인수인계를 완료함.



6. 제13회 구암학술세미나 참관

- 2015.11.20.(금).15:00.
- 사천문화원 공연장
- 주제
 - 좌장 : 정우락 (경북대학교 교수)
 - 사회 : 이은식 (구암연구소 소장)
 - 제1주제 : 구암 이정의 서적편찬과 간행이 16세기 도통(道統)확립에 미친 영향 (발표자 : 우정임-부산대학교 교수, 토론자 : 김정운-경북대학교 교수)
 - 제2주제 : 규암 송인수의 학문관과 의리정신 (발표자 : 안동교-조선대학교 선임연구원, 토론자 : 김봉곤-전남대학교 교수)
- 문중 참석 10명



7. 구암선생 묘소 문화재 추진사항

- 2015.3.14 대종회 이사회시 구암묘소 문화재 신청 의결사항임
- 2015.4.11. 묘소비문 액자 및 족자 완성본 수령(6개)
- 2015.6.26.~10.16. 우소재 문중과 협의, 회의록 작성, 진주시청에 문화재 신청서류 제출(영규 고문, 승열 이사 추진)
- 2016.1.8. 경남도문화재위원회 현장조사
 - 현장조사자 : 도청 문화재과 계장 및 직원, 진주시청 담당직원, 문화재위원3명 (경상대 교수 2명, 김해박물관장)
 - 현장안내, 설명, 진행사항 파악 : 회장, 영규고문, 준용 이사
 - ※ 2016년 3월 준승경 도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



8. 대관대 복원사업 진행사항

- 구계서원 대관대유계회에서 대관대 서재 복원사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측량 결과 본 지역(구암리 80번지, 산44번지)은 문화재구역이 아니므로 사업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음
- 2008년에 1차 지표조사, 2011년에 2차 시굴조사까지 마친 상태임. 3차 발굴조사가 남아 있으나, 발굴조사비용이 1억~2억 소요되고, 발굴조사결과 문화재구역 확대가 가능할 만큼 요건을 충족하지는 불확실함
- 일반건축으로 대관대 서재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이나 건축비용 조달이 불가하고, 건물 유지 관리방법도 어려운 실정임

1. 독립위 : 반죽산
2. 독립 건물 : 대관대(독조건물 3년 경질)
대관대서재(독조건물 6년 경질), 숭산대문 및 부속건물
3. 지표조사 : 2008(경상대학교 박물관, 사천시)
4. 시굴조사 : 2011년
5. 복원계획 : 2011년 - 2012년
6. 복원예산 : 13억

반죽산과 숭산대 문중은 대관대, 그 밖에 대관대서재가 있고 대관대의 복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숭산대문은 대관대 유계서원에서 대관대서재로 모르는 일이 있다. 대관대서재와 관련된 서적은 소나무 등의 경관수가 있다.



2016년도 종무계획 심의

1. 시조공 춘계대제에 관한 건

- 제향일 : 2016. 4. 19(일), 11:00
- 유사 : 성균진사공파 대곡문중
- 초헌관 : 참지공파 이태희



2. 구계서원 춘계제향 참배의 건

- 일시 : 2016년 04월 05일 10:00 (음 2월28일 정자일)
- 장소 : 사천읍 구암리 구계서원
- 문중참여 : 구계서원 제향에 많은 종인 참여요망



3. 제7회 구암제(과거시험 재연, 경창대회, 와룡문화제) 참관의 건

- 구암제 기간 및 장소 : 2016. 5. 22(일) 10:00 사천시청
- 문중참여 : 제7회 구암제에 많은 종인 참여요망



4. 임원 조정 및 보선에 관한 건

- 타계하신 분, 노령으로 활동이 어려운 분은 임원에서 제외
- 지역별, 파벌 추천으로 임원 보선(대구화수회에서는 4/19일 춘계대제 시에 참석하여 추천하기로 함 : 이종두 전 화수회 회장)

5. 기타 대종회 및 화수회 활성화 방안

6. 대종회 임원 명단

(2016.1.25.작성)

연번	직위	성명	연번	직위	성명	연번	직위	성명
1	회장	이선영	25	총무국장	이우식	49	이사	이용수
2	명예회장	이봉록	26	이사	이영춘	50	이사	이용수
3	고문	이준현	27	이사	이권식	51	이사	이재수
4	고문	이병대	28	이사	이경식	52	이사	이정구
5	고문	이봉기	29	이사	이경호	53	이사	이정배
6	고문	이영규	30	이사	이기명	54	이사	이정석
7	고문	이원기	31	이사	이기호	55	이사	이정현
8	고문	이종점	32	이사	이남도	56	이사	이종두
9	부회장	이종수	33	이사	이동선	57	이사	이주호
10	부회장	이남민	34	이사	이만국	58	이사	이창문
11	부회장	이무식	35	이사	이민도	59	이사	이철호
12	부회장	이병무	36	이사	이봉호	60	이사	이태복
13	부회장	이영근	37	이사	이삼도	61	이사	이태일
14	부회장	이영기	38	이사	이상석	62	이사	이현명
15	부회장	이영일	39	이사	이석재	63	이사	이형부
16	부회장	이영철	40	이사	이성대	64	이사	이형창
17	부회장	이용섭	41	이사	이순호	65	이사	이호중
18	부회장	이재봉	42	이사	이승열	66	이사	이효중
19	부회장	이정섭	43	이사	이영갑	67	이사	이흥규
20	부회장	이종현	44	이사	이영갑	68	이사	이준용
21	부회장	이태량	45	이사	이영기	69	이사	이기호
22	부회장	이형환	46	이사	이영춘	70	이사	이남근
23	감사	이순호	47	이사	이영택	71	이사	이영근
24	감사	이영섭	48	이사	이영학	72	이사	이영춘

금성옥진(金聲玉振) 그 완전함에 대하여



구계서원 서원장 이은식

공자의 행적을 금성옥진에 비유한다. 금성옥진이라 함은, 지와 덕을 모두 갖춘 상태를 의미한다. 금성옥진이라는 말은, 금성(金聲)은 쇠의 소리로 직역할 수 있으나, 악(樂)에서 음악 연주 시작의 소리이고, 옥진(玉振)은 옥을 울린다고 직역할 수 있으나, 악에서 연주의 마지막에 연주하는 소리다. 이 단어는 결국 인간의 삶의 시작과 끝, 인격도야의 시작과 이룸, 학문의 시작과 완성 여러 가지 유학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말인데, 실제로 이 단어는 공자에게 비유되었던 말이다.

그럼으로 유학자의 꿈과 이상이 금성옥진이라고 해도 어긋나지 않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공자의 사당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는 없으나, 나는 얼마 전 대만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때 공자 사당을 찾은 적이 있다. 사당은 장엄하게 건축이 되어 있는데, 입구에 金聲玉振을 품격 있게 새겨 놓았는데 문 오른쪽에는 금성 문 왼쪽에는 옥진이라고 새겨놓았다.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과거나 현재나 인격의 닦거나 학문전념하거나 오로지 일념의 결과는 얼마만큼 공자의 삶과 철학에 비슷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의 인물이지만, 스스로 신중하고



제자들에게는 전념으로 교육 시키며 학문을 닦아 정치로 나아가 민중의 삶을 보다는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조선시대에도 지금에도 인문학이 살아서 한길로 나아가는 금성과 그리고 마침내 그 성과를 아우르는 옥진은 매우 지시적이고 교조적인 유학의 길이다.



도산서원에 가면, 퇴계선생의 유물을 전시하는 전시실이 있다. 무이구곡가의 그림, 퇴계선생의 친필과 학문의 자료 등을 모아 두었다. 아마 퇴계 선생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모든 행적을 모아 둔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위대한 유학자의 삶의 궤적을 집적한 유물관의 이름을 옥진각(玉振閣)이라 하는지 모를 일이다.



구암선생이 59세 되던 해, 1570년 12월 8일에 퇴계선생이 돌아가셨다는 부음을 들었다. 당연히 안동 도산서당으로 한달음으로 올라가야 하나 이미 구암선생도 병중에 있었다. 사천 구암에서 조출한 제수를 진설하고 제문을 지어 애도하였는데, 그 제문에서 구암선생은 퇴계선생을 금성옥진으로 비유한 내용이 있다.

蔚然有聲 金聲玉振 實維先生

제문의 시작이 매우 애절하고 간장을 절이면서 퇴계선생을 칭송하고 구구절절히 퇴계의 덕행을 열거하지만 나에게 유독 금성옥진이 새겨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구암 선조에 의해 간행된 도서의 성격



성진사공파 26세손 이영섭

문헌정보학과의 논문(안현주, 전남대학교, 2011년)인 “龜巖 李楨의 圖書刊行에 관한 研究 (A Study on Guam Lee Jung's Publication of Books)” 중 에서 뽑았습니다.

논문에서 구암 선조는 생전에 성리학 관련 서적을 부

는 구암이 [문공주선생감흥시]의 편집에 대해 자문을 구했을 때에 자세히 어떻게 해야 할지 설명하면서, “옛날에 장남軒(張南軒)이 간행한 정자집(程子集)을 감상해 볼 때에 온당치 못한 곳이 있음을 보고 주자(朱子)께서 고칠 것을 힘써 청하였고 여동래(呂東萊)가 지은 백록동서원 기문에 미온한 곳이 있음을 주자가 또 하나 하나 지적해 내어 고치기를 청하오니...” 라고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퇴계와 구암은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도서간행을 공동작업하였던 것이다.

도서간행에 도움을 준 이는 퇴계 이황 이외에도 감사 남궁침, 김충갑, 진주목사였던 김흥 등이었다. 남궁침은 구암이 경주부윤으로 있을 때에 경상감사였으며, 순천부사로 재임할 때에는 전라도관찰사였다. 남궁침은 [정씨유서분류], [정씨외서분류], [성리유편], [당감], [공자통기], [이정수언], [이락연원], [황조명신언행록] 등의 서적을 각 군에 분담하여 판각하도록 도와주었다. 김흥은 진주목사로 있으면서 [의려집]을 판각하고, 김충갑은 [문공가례의절]과 [문공주선생감흥시]의 발문을 썼다.

2. 주제별 특징

전체 20종의 도서들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자부(子部) 유가류(儒家類) 9종, 집부(集部) 별집류(別集類) 3종, 집부(集部) 총집류(總集類) 3종, 사부(史部) 전기류(傳記類) 2종, 경부(經部) 사서류(四書類) 1종, 경부(經部) 예류(禮類) 1종, 사부(史部) 초사류(抄史類) 1종으로 나타났다. 자부 유가류에 속한 도서가 9종으로 가장 많으며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집부의 별집류와 총집류에 속하는 도서가 각각 3종이다.

기묘사화 이후 중국으로부터 송대 성리학자들의 저술이 다수 수입되었다. 구암이 간행한 도서의 성격은 모두 성리학에 관련된 도서이고 그 중에서도 송대 염락관민(濂洛關閩)계통의 학자들의 저술이 주를 이룬다. 편저자를 살펴보면, 주희, 정호, 정이, 소옹, 양시 등은 송나라의 성리학자이고, 구준, 양렴, 호거인, 설선, 사탁은 명나라의 성리학자들이다. 이들이 편찬한 도서는 성리학자들의 어록, 사상서, 시집, 전기, 독서록 등으로 성리학을 이해

하는데 가장 좋은 지침서들이라 할 수 있다. 구암은 서적이 귀한 지방에서 후학들이 성리학을 이해하고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양질의 성리학서를 간행하여 보급하였던 것이다.

3. 간행처

간행처 중 확실한 것은 15종이고, 불확실하여 추정된 것은 5종이다. 간행처가 확실한 도서만 살펴보면 순천 7종, 경주 4종, 청주 3종, 진주 1종으로, 순천에서 간행한 도서가 가장 많다. 불확실한 도서까지 포함해서 살펴보면, 순천 7종, 경주 4종, 청주 4종, 함천 2종, 진주 1종, 영천 1종이다. 순천, 청주, 경주는 구암이 지방관으로 재임했던 지역이고, 함천, 진주, 영천은 구암이 경주부윤으로 재임시 판각을 의뢰했던 곳으로 추정할 수 있다.

4. 간행시기

구암이 도서를 간행한 시기를 살펴보면, 간행 시기가 확실한 도서만으로 볼 때에 1554년부터 1566년 사이이다.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청주목사시절과 경주부윤시절, 그리고 순천부사로 재임할 때이다. 청주목사 재임시에는 [연평답문], [문공가례의절], [문공주선생감흥시]를 간행하였고, 경주부윤으로 재임시에는 [의려집], [학용장구지남], [당감], [황명명신언행록] 등을 간행하고, 순천부사로 재임시에는 [성리유편], [거업록], [정씨유서분류], [정씨외서분류], [경현록], [염락풍아시], [삼한시귀감]을 간행하다. 구암은 지방관으로 재임할 때에 성리학관련서적을 간행하여 보급하였고, 마지막 임지인 순천에서 가장 많은 서적을 간행하였다. 즉 그의 생애 말년에 집중적으로 도서간행을 하였는데, 순천에서는 도서간행과 함께 경현당을 건립하여 김굉필을 추모하고 그의 유지를 기렸다.

5. 판종

총 20종의 서적 중에서 형태적 특징이 나타난 19종은 모두 목판본이다. 설문청의 [독서록]은 현존본이 없어서 책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즉 [독서록]을 제외한 19종은 공통적으로 구암이 생존하며 간행하였으므로 16세기 판본이며, 또한 지방에서 간행된 관판본(官板本)들이다. 조선시대 지방판본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지런히 독서하였으며, 그가 지방관으로 재임할 때에는 성리학 관련서적을 편찬하여 간행하거나, 기존의 성리학서를 간행하여 보급하였다고 서술하고, 이 논문에서는 그의 편찬활동과 도서간행활동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 중 말미에 刊行된圖書의 성격에 대한 내용을 옮겨봅니다. 논문이기에 존칭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간행본을 조사한 결과, 구암이 생전에 편찬하거나 간행을 주도한 도서는 20종(뿌리 2호를 참고)으로 나타났다. [구암집]에 나타난 16종의 도서와 현존본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구암집]에 나타난 [황명명신언행록]과 [이학록]은 현존본에서 [황명명신언행록]으로 합본된 상태이고, 설문청의 [독서록]은 현존본이 파악되지 않았다. 그러나 [구암집]에는 언급되지 않은 [삼한시귀감]과 [염락풍아] 2종이 순천부에서 간행되었음이 밝혀졌다. 간행된 도서를 주제별, 간행처, 간행시기, 판종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 구암의 도서간행

구암이 편찬한 서적은 [황명명신언행록], [성리유편], [경현록], [수서시] 4종이고, 교정한 서적은 [문공주선생감흥시], [당감], [정씨유서분류], [정씨외서분류] 4종이다. [연평답문], [문공가례의절], [격양집], [독서록], [의려집], [학용장구지남], [이정수언], [공자통기], [이락연원속록], [거업록], [염락풍아시], [삼한시귀감] 12종의 서적을 간행하였다. 그러나 [수서시]는 편찬하였으나 간행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구암은 지인들로부터 구한 서적을 읽은 후에 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경우 대부분 퇴계와 의논하여 간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퇴계

제사의 유래와 의미



우소재공파 25세손 이영춘

제사의 동기는 자연재해, 질병, 맹수들의 공격 같은 인간집단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 재앙을 막기 위해 하늘이나 땅, 강이나 바다, 오래된 나무, 높은 산 등에 일정한 절차를 갖추어 소원이나 무사안녕을 빌었던 것에서 유래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조상께 드리는 제사를 우리의 고유한 미풍양속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외래문화이다. 조상제사의 유래는 고려 이전까지는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고려 말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중국의 유교가 낳은 주자학이 전래되면서 조상제사 의식도 함께 들어왔고 이것이 후에 조선의 태조 이성계에 의하여 널리 장려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중국의 제사 기원을 살펴보면 공자 이전인 하나라 때부터 있었으며, 당시 제사는 지금처럼 죽은 자에 대한 제사가 아니고 살아 있는 종손(어른)을 높은 곳에 앉혀 놓고 제사형식의 예를 갖추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황제에게만 적용되던 것을 제후들까지 그리고 춘추전국시대에 와서는 서민들도 따라 하게 되었고, 그 이후 점점 확대되어 죽은 조상에게까지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조상 제사는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외래문화이며, 본래는 죽은 조상이 아니라 살아 있는 어른에게 드리는 효의 한 예였던 것이다.

종교적인 면으로 보면 사후 세계의 인정을 통한 유교 특유의 간접적 영생법의 의미를 가졌다.

삼국시대 이전에는 자연숭배로서의 제사의식이 행해졌고 삼국시대에는 왕가에서 자연신에 대한 제사가 자기 가문의 조상에 대한 제사의례로 발전되었으며, 고려 말에는 성리학의 전래와 더불어 주자가례에 따라 가문의 무덤을 설치하려는 운동이 사대부사이에서 활발해졌으나 별로 보급되지는 않았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불교의례의 전통이 남아 있어, 주자가례와 같은 유교의례는 사회전반에 별로 보급되지 않고 오직 양반들의 전유물이었다. 그리하여 ‘제사를 지내면 양반이다.’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그렇게 보면 지금 제사를 모시고 있는 우리 모두는 양반인 것이다. 16세기 중반 성리학이 심화되어 양반사회에서 주자가례가 정착되고 주자가례에 명시된 4대조까지 제사를 지내는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면서 조상에 대한 존경과 추모의 표시로 행하여지고 있다.

제사는 후손들이 공경심과 효심을 나타내는 의식으로 사회적 소속감, 연대감을 증진하며 가족 간의 우애와 화목을 다지는 의미를 가진다. 특히 오늘날의 핵가족 사회에서

초래되는 단절과 공동체 의식의 결핍을 보완하여 현대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되기도 한다. 사방으로 나뉘어 살아가는 현대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정담을 나누고 가족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제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에 와서는 제사를 올리는 집은 조상에 대한 숭배의 목적이 아닌 친척, 형제와의 관계유지와 전통적인 관례와 풍습으로 하는 것이지 조상신을 모신다는 종교적인 이유는 매우 약해졌다.

제사를 지내는 시간은 해시(亥時) 말에서 자시(子時) 초가 관습으로 되어 있었다. 요즈음 시간으로 보면 대략 밤 11시 30분에서 12시 사이일 것 같다. 이는 돌아가신 날의 첫 시각에 지내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근래에 저녁 시간에 지내는 풍습이 생겼는데, 반드시 돌아가신 날 저녁, 어둠이 짙은 뒤에 모셔야 할 것이다. 예(禮)는 정(情)에서 우리나라와야 하는 것으로 시간보다는 성의가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제사(祭祀)의 유래와 의미 그리고 예학적(禮學的) 이론 [제1부]



국가무형문화재 제85호 석전대제 이수자 이대호(李大孝)

1. 제사(祭祀)란 무엇인가?

제사란 사람이 죽고 나서, 그 후손이 그 부모(祖上)를 추모하거나 그 근본에 보답하고자 하여 공경하는 예(禮)를 나타내면서 조상에게 여러 가지 제수(祭需)를 바치는 의식 행위를 말한다. 논어 학이[論語 學而]에, “증자가 말하기를, 죽음을 소중히 여기면서 조상에게 정성껏 제사지낸다면 백성의 덕이 후함에 돌아가리라.[曾子曰 慎終追遠 民德歸厚矣]” 라고 하였다. 따라서 신종(慎終)이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상례(喪禮)의 예를 다함이고, 추원(追遠)이란 사람이 죽은 후 제례(祭禮)의 예에 그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대개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죽음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매우 소중히 생각하여 조상을 쉽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를 추모하여 기제 또는 시제, 차례의 예를 다함에 있어서 위에서부터 먼저 술선수범한다면, 백성들이 이에 교화되어 그 덕이 더욱 두터워지게 된다는 뜻이다.

또 제사는 효(孝)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자식이 그 아버지를 섬김에 있어서 위로는 하늘의 도리(天道)에 순응하고, 아래로는 인륜(人道)에 거슬리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 사회의 여느 종교단체에서는 제사가 마치 숭배사상(祖上崇拜)이니, 기복사상(祈福思想)이니 하면서 제사를 지내서는 안된다고 하는 사회적 모순현상이 생겨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예기 제의(禮記 祭儀)에 군자는 종신의 상(終身之喪)이 있다 하였으니, 이는 기일(忌日)을 말한 것이라 하였고, [君子有終身之喪, 忌日之謂也] 제사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살아생전에 다하지 못한 그 효(孝)를 계속하여 이어나가는 것이라 하였다. [祭者, 所以追養繼孝也] 그러면서 “군자는 제사에 기원하지 않으며, 오로지 제사에만 뜻뉘는 예를 지킬 뿐이지 사사로이 복을 받으려고 기원을 하지 않는 것이다.[君子曰, 祭祀不祈, 祭祀有常禮, 不爲祈私福也]” 라고 하였다.

자식이 아버지를 섬기는 세 가지 도리에,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봉양(奉養)함에 힘써 그 도리에 순응하는지를 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사(葬事)함에 힘써 그 슬픔이 진실인지를 보고, 그 이후에는 공경(恭敬)함에 힘써 사철에 제사지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산 사람을 섬김(奉養)에는 예(孝道)로써 하고, 죽은 사람을 장사(葬事)지냄에도 예로써 하고, 죽은 이후에 제사지냄(恭敬)에는 더욱 이를 예로써 하여야 한다는 뜻이 된다.

예기 곡례(禮記 曲禮)에서도 도덕인의(道德仁義)가 예(禮)로써 이루어진다고 하였고, 또한 예(禮)는 공경함을 근본으로 하여 덕(德)으로 모인다고 하였으니, 그 덕(德)으로 세상을 감화한다는 뜻이 된다. 그러므로 세상을 감화하는 방법론에는 가르침(禮)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가르침(禮)은 제사(祭祀)를 통하여 완성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 유림인들은 더욱 더 봉양함에 힘써고, 제사함에 공경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제사의 기원(起源)은 태초의 원시인이나 고대인들이 우주자연과 천지만물의 경이로움

을 경험하면서부터 천지자연 등의 자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을 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종족보전을 위해서는 부득이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게 되었다. 그리하여 자신들보다 훨씬 위대한 자연이나 절대자를 숭배하면서 제천의식이 생겨나게 되었고, 오늘날의 제사문화로 이어져 왔다. 따라서 제사는 태초에 인류가 탄생하면서부터 불가항력적으로 자연과 더불어 그 역사를 함께하여 올 수 밖에 없었고, 시대에 따라서는 애니미즘이나 정령숭배사상에서부터 토테미즘과 사머니즘의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2. 가정제사의 구분(區分)

우리나라의 기제제도(忌祭制度)는 고려 말기 1390년(공양왕 2년)에 포은 정몽주(圃隱鄭夢周)선생의 발의로 만들어진 대부(大夫)·사(士)·서인(庶人)의 제례규정이 명문화되기로는 처음이었으며, 오늘날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4대봉사를 하면서, 표준제례규범을 따르진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구분(계도별)	정몽주 (1390년)	경국대전 (1484년)	김오경정 이후 (1896년)	표준제례규범 (1969년)
大夫 이상	3대 奉祀	4대 奉祀		
6品 이상	2대 奉祀	3대 奉祀	4대 奉祀	2대 奉祀
7品 이하	父母 奉祀	2대 奉祀		
일반백성		父母 奉祀		

묘제제도(墓祭制度)의 유래는 당나라 때 개원례(開元禮)에, “삼대(三代) 이전에는 묘제제도가 없었다가 진(秦)나라에 이르러 비로소 무덤 옆에 재실(齋室)을 지었는데, 한(漢)나라가 이를 이어받자 그 후로 풍습이 되었다.” 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사계 김장생(金長生) 선생이 “제사를 반드시 묘소 앞에서 지내지 않고, 영역 남쪽의 으스스한 곳 [재실을 지어서 시제의식에 따라 합제]에서 지내는 것은 신도(神道)가 그윽하고 고요하기 때문에 동요함이 있을까 저어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한 것이 묘제의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 이 제도를 퇴계 이황(李滉) 선생에게도 물어보았더니 “어찌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였다. 또 “가례(家禮)에 묘소 앞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한 것은 대개 시속을 따른 것이니, 지금 국가의 산릉(山陵)의 경우 반드시 정자각에서 제사 지내는 것은 곧 예(禮)의 본뜻이 그렇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성묘(省墓)의 유래에 대해서 성호 이익(李瀾) 선생은 <설날과 추석>이란 글에서, “우리나라 민간 절기(俗節)인 8월 15일에 성묘하는 것을 추석이라고 한다.” 고 하면서 추석을 민간 풍습이라고 말했고, 순암 안정복(安鼎福) 선생은 3월 상순의 별초는 당나라 <개원례(開元禮)>에서 비롯되었지만 한식(寒食)때 묘소에 참배하고 추석(秋夕)때 별초하는 것은 “중국의 예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於禮無見]” 고 말하면서, 추석 성묘는 중국에는 없던 우리만의 풍속이라 하였다.

필자 이대호 이력사항

소속 : 성균관 전례위원
 경력 : 국가원로회의 지도위원, 문화관광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선비문화관광진흥원 이사장, 조선왕릉연구원 원장, 국가무형문화재 제85호 석전대제 이수자, 국가무형문화재 제56호 종묘대제 전승자

모범생



참의공파 25세손
이 준

“야 이놈들아 교실에서는 뛰지 말고 좀 살살 다니란 말이다!”
우리 큰놈이 초등학교 갓 입학하여 학교에 다닐 때 담임선생님께서 훈육막대기로 칠판을 탕탕 두드리며 반 아이들에게 큰 소리로 여러 번 외치셨단다. 그래도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왱자지껄 쿵광거리자 선생님께서는 ‘에휴’ 하며 한숨을 쉬시더라.
그러던 담임께서 이번에는 우리 큰놈을 보더니만 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시더라.
“이효반, 이놈아 너는 세계 뛰어 다녀도 되단 말이다!”
큰놈은 순간 어리둥절하였단다. 그도 그럴 것이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항상 얌전하게 살짝 살짝 걸어 다녔으니 선생님 보시기에도 답답하고 안쓰러웠으리라. 이놈은 몇 년 전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지금은 연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인터넷이나 언론에도 가끔 이름이 나온다.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금년 초 곤양의 같은 마을에 사는 5촌 당숙의 손자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하였는데 한 일주일 지나자 선생님께서 이 손자를 식당의 앞에 세우더니 “얘들아 식판은 이시효처럼 들고 다녀야 해, 알았지?” 하시더라. 이 조카의 부모는 둘 다 그 어려운 기술고시출신으로 지금 대전 특허청에 근무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며 순간 우리 씨족의 원형(原型, archetype)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즉 ‘영리하지만 마음 여리고, 심성 착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남의 귀감이 되고, 뺏어 먹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없이 살더라도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내 것을 내어 주어야 마음이 편안함’ 그런 모습 말이다.

하여 가만히 살펴보건대 내가 아는 내 주변의 일가친척은 대개가 심성이 착하고 마음이 여리다. 그래서인지 특별히 잘 산다거나 재력이 있다거나, 세력이 왕성하여 사회적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행사한다거나, 명성이 출중하여 많은 사람들의 추종을 받는 이들이 없다. 특별히 못하는 사람도 없지만, 큰 죄를 지어서 옥살이를 하는 사람도 없다. 참으로 본받아 마땅한 선량한 모범생들이다.

그러나 이놈의 사회가 ‘성실하고 착한 사람’ 이 ‘잘사는 사회’ 가 되어야 마땅할 터인데, 세태는 그런 사람일수록 ‘제 밥그릇 챙기지 못하는 바보’ 로 낙인찍히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으니, 하늘을 보고 땅을 쳐도 가슴만 멍멍해질 따름이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일족은 절망을 하여서도 용기를 잃어서도 안 될 것이다.
하늘을 바로 세우고, 땅의 형세를 고르게 하고, 인륜(人倫)을 가지런하게 하는 것은 우리일족들이 보이는 모범(模範)일지니, 이로써 온 세상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지 않고 되돌아와 저마다의 행복을 누리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에게 울타리가 되고 사랑의 빛을 나누어야



참의공파 26세손
이 병 무

어렸을 때에 저희 집 울타리는 싸리 대나무로 얼금얼금하게 엮어 놓았습니다. 길 가는 나그네가 보아도 모든 사생활이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거리감이 없이 이웃들이 정을 나누면서 웃음으로 마음을 통할 수 있었습니다. 도둑이 그 낮은 싸리 담을 넘지 못했을까요? 제 옆에는 인생의 테두리를 많이 두른 어른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마음으로 의지할 수 있고 뭔가가 튼실한 기둥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먹었는지 그 울타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노인대학을 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울타리가 되고 있고 서로의 사생활을 환히 알게 됩니다. 이런 일이 사실은 서로에게 위안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든 우리는 물질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운명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멋진 세상에 서로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에서 사랑의 눈빛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눈빛은 주변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잘못된 일은 용서라는 반사작용을 통해 우리가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마음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노인대학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 울타리를 통해 서로 사랑의 빛을 주고 그 빛 가운데서 위로 받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 커다란 기쁨이 현재 우리의 삶에 놓여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기쁨을 갖으시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월 속에 소중한 인생



백인재공파 25세손
이 형 환

인생은 참 소중한입니다.
인생을 연습처럼 살아갈 수는 없으므로
순간순간을 진실하게 살아가야지요

밝은 날이든 어둠 깔린 날이든 슬금슬금 지내며
기대고 살아가는 습관은 나를 잃어버립니다.
나의 존엄성을 포기하는 할 수는 없지요
시련을 떨어버릴려면 용기뿐입니다

추운 새벽 따뜻한 이불속에 몸담고 있다 보면
어느새 해는 밝았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인생은 먹고 놀고 뛰고
살아가는 놀이터가 아니라고."

하루하루의 시간을 진실하게 땀 흘리며
초등학교 운동회 때의 결승선 테이프를 끊는
힘으로 달려갑시다.
내 손에 넣지 못한 연필 한 자루였지만
최선을 다한 질주였으니까요

씨를 뿌리지 않고 가꾸지 않은 수확은
년년한 존중 반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허구의 그릇 속에 희망의 씨가 싹 틀 수 없고
순간순간의 땀질용 말이라면 믿음이 있을까요?
세월이 흘러가도 강바닥 속의 돌덩이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진실

관용과 이해와 사랑은 진실의 반석위에서 이뤄집니다
복을 지으며 살아가라는 말씀 나에게
버거운 실천인줄 알았는데 진실의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 멀리 있는 복도 내게 온다고 합니다.

돈이든 명예이든 영원한 내 것은 없다고 하지요
평생 땀 흘린 진실의 보따리는 가득 채워놓고 갑시다.
용졸하고 용기 없는 마음일랑 모두 버리고
2016년에는 항상 건강하고 좋은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종중과 세태의 변화



참지공파 25세손
이 호 중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씨족문화가 사회 전반을 지배해 왔으며, 이들이 하나의 문중을 형성하고 동질감 있는 단체로서의 실질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를 지탱해 왔다. 성과 본이 매우 중시되었고, 혼

인관계나 재산문제, 사회적 규율 통제에 있어서 종중(宗中)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문중인들의 소속감을 높여주는 매개체로 자리를 잡아 왔다.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성과 본이 그 본질적인 원천을 이루는데, 아래에서는 종중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법적 분쟁과 호주제 폐지로 인해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사회상의 변화과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예전에는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하던 종중소유의 부동산들이 각종 개발이나 수용 등으로 인해 가치가 급등하면서 종중재산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빈발하고 있으며, 이에 부수하여 종중 대표자의 자격을 다투거나 유사한 종중명칭사용금지를 구하는 소송, 종중총회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 등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종중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던 규범들이 종중의 통제력을 벗어나 이익 집단화 하기 시작한 씩씩한 경험들이다. 종중과 종중원 사이의 소송은 종중재산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종중원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종중재산분배와 관련하여 종중원이 종중을 상대로 종중재산분배결의 무효확인청구소송, 종중재산 분배금지청구소송, 종중원지위 확인소송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해 둔 종중재산에 대한 분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종중과 종중원사이의 소송에서는 종중원의 범위 확정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종중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므로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지역거주자나 특정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종중의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의 목적, 종중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므로, 종중원의 지위는 종중규약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종중원들이 종중세보, 족보, 가계도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그 종중의 공동선조의 후손들이며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의 역할 등 종중원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왔음을 입증한다면 누구라도 그 종중원이 된다. 종중원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면 그 종중의 권리도 당연히 대등하게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2005년에는 성년 여성에게도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인정하여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해 왔던 종래의 관습법은 이제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종중의 권리가 남성들만의 전유물인 것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인식되어 왔지만, 시대상의 변천을 반영한 진일보

된 변화과정이라고 본다.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가족 내의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아니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여 남녀평등의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더욱 실현되는 방향으로 강화되어 나가고 있다.

종중과 종중원이 아닌 제3자와의 소송은 종중 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주로 발생하는데, 종중이 제3자를 상대로 종중총회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종중재산이 처분되었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제3자가 종중원으로부터 종중재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았음을 원인으로 종중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종중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은 먼저 종중규약에 따르고,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종중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보다 종손, 유력 종중원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종중원들 사이의 분열과 갈등이 생겨난다.

종중원들의 분열은 종중의 명칭 사용에 대해 유사한 종중명칭사용금지를 구하는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유사한 명칭 사용으로 인해 종중의 주체를 혼동하거나 종중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다는 이유인데, 종중의 명칭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재산분쟁에서 입증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종중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이 없는 우리법제 하에서는 종중을 둘러싼 각종 분쟁의 해결을 주로 관습법이나 대법원 판례에 의존하고 있는데, 종중의 분쟁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법적 분쟁보다는 종중 구성원간 단합이나 종중규약의 재정비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종중원들 스스로 종중의 일원임을 자각하여 종중에 대한 권리 이외에 기본적인 의무이행도 뒷받침하여야 할 것이다.

덧붙여, 2008년 1월 호주제가 폐지된 이래 전통사회에 대한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성과 본을 자연스럽게 변경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변화일 것이다. 법원에서는 범죄의 은폐나 법령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과 본의 변경을 허용해 주었는데, 이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반발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최근에는 법원이 점차 성과 본의 변경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당사자의 변경의사에만 주목하지 않고 이로 인한 불이익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미성년 자녀의 정체성 문제나 부자관계의 복원 가능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살펴 그 허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전통만을 고집할 수는 없으므로 변화되는 일상을 어느 정도 반영하면서 그 뿌리는 굳건히 유지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내가 실제로 처리한 종중분쟁 경험들을 간략하게 소개한 것으로, 우리 문중만이라도 종중을 둘러싼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 대종회의 항구적인 번창을 염원해 본다.

- 2016년 봄에 서초동에서



[구암제]를 통한 대한민국 문화원상 수상



성균진사공파 25세손
이영규

사천문화원에서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29개 대학과 기관단체에서 37명의 전문교수가 13회에 걸쳐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10년도 부터는 구암 이정선생의 과거시험을 2015년까지 6회에 걸쳐 재현하여 오면서 전국에서 학문에 깊은 뜻있는 학자

1,500여명이 참가하여 한시대회를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를 추진하여 온 사천문화원 장병석 원장님의 좋은 의지와 헌신적인 노력에 대하여는 우리 문중에서는 그 성과를 인정하고 격려와 칭찬을 직간접으로 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로 인하여 2015년 10월 8일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개최한 2015문화회의 날 식에서 2015 대한민국 문화원상 축제문화행사 부문의 우수프로그램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행사는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전국229개 문화회원 중에서 담당하게 선정되는 값진 성과이다.

사천문화원은 과거재현 및 전국 최고의 한시대회를 펼쳐 [구암제]를 2010년부터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여 진행해 왔으며 그 독창성과 프로그램운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문화원축제에 선정되어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2016년 구계서원 춘향 제례



봄여행 명소-순매원



생원공파 25세손
이정석

봄이 오면 젤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이 남녘으로부터 전해지는 꽃소식이다. 철따라 전국의 산하를 안마당처럼 드나들었지만 정작 “등잔 밑이 어둡다” 라는 속담처럼 가까운 명소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다.

그런고로 부산 근교의 매화 명소를 찾아가보기로 하고서 08:04분 구포역에서 원동행열차에 이용하여 17분을 달려 원동역에

모퉁이를 s자로 돌아오는 오는 열차의 모습을 담기 위해 장사진을 치고 기다리는 풍경도 볼만하다.



길가의 장사꾼들을 피해 정자가 있는 곳에 이르면 소금을 뿌려놓은 듯한 풍광의 순매원을 만날 수 있다. 비탈진 진입로를 100여 m 걸어 들어가면 소박한 물레방아가 방문객을 맞는다. 매화나무가 빼곡한 언덕배기엔 장독대가 한 줄로 늘어서 있고, 삼삼오오 봄나들이 나온 상춘객들은 돛자리를 깔고 앉아 정담을 나누며 연신 추억을 남기기에 여념이 없다.



또한 순매원에서 국수 2,000원, 파전 3,000원으로 허기를 달랠 수도 있다. 경부선 철길이 손만 내밀면 땅을 정

도로 지척에서 한나절 봄나들이 즐겨보는 것도 나름의 멋과 운치가 있어 좋다. 또한 원동미나리축제가 3월 한 달 동안 인근에서 같이 열려 시간적 여유를 갖고 둘러본다면 일거양득이다.

다시 원동역으로 와서 열차에 오르면 30여 분이면 구포역을 거쳐 부산역에 닿는다. 여유를 즐길 줄 아는 자는 행복한 법이다.



하차하였다. 주말에 있는 이틀간의 축제가 끝난 월요일인지라 호젓한 분위기나 맘껏 즐겨야겠다. 원동의 순매원은 최근 매화명소로 널리 알려진 탓에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몰려 한바탕 흥역을 치르는 곳이기 때문에 열차 이용이 가장 효율적이다. 축제기간 동안엔 자가용 이용은 절대 피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2km 진입에만 두어 시간은 족히 걸리니 길바닥에서 지치게 되는 경우이다.



원동역을 우측에 끼고 도로변 산책로를 500여m만 걸으면 전망대에 이른다. 전망대에선 철로변 산비탈에 조성된 순매원의 매화를 잘 조망할 수 있는 사진 포인트이다. 부지런한 상춘객들과 사진사들은 산

소식지 6호 원고 모집

여기 소식지 6호에 담을 원고를 청탁하오니, 부디 사양마시고 보내 주시면, 정성드려 인쇄하여 널리 배포하겠습니다.

- ★ **소식지의 성격** : 학술적인 것 보다 일상생활 주변 이야기 중심으로 가볍고 쉽게 읽힐 수 있는 소식
- ★ **원고의 장르** : 각 문종의 선조 또는 자손 이야기, 기행문, 수필, 시, 사진, 편지글, 논설, 종인들의 소식, 대종회 운영 현황 등등
- ★ **원고의 분량** : 제한 없음(반드시 개인사진, 자료사진 포함) 원고 송부 마감 일시 및 소식지 6호
- ★ **발행 일시** : 2017년 3월말, 대종회 춘향제
- ★ **소식지 발행에 따른 기부금 접수 또는 광고비** : 대종회 사무국
- ★ **원고를 보낼 곳** : e-mail leeyg@chol.com
편집위원 이영근 (선무랑공파 24세손)